

옥상에 올라가서

Matthew 10:24-39

2020 년 6 월 21 일

아버지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5 월 둘째 주일에 지켰습니다. 한국 전통을 따라서... 미국에서는, 오늘이 아버지 주일, 6 월 셋째 주일입니다.

두 남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세금 문제, 그리고 생활비 걱정하는 이야기 등을 하다가 마침내 가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남자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나는”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하면서, “나도 아들 셋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말을 듣고 있던 남자가, 말하기를, “자식이 없으나 뵙니다” 하면서 동정심 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더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여섯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개 소리로, 자식들이, 어린 나이 때에는 아버지를, 아부 라고 부르고.. 조금 크면 아빠라고 부르고... 더 크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더 크면 콜렉트 콜..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전화를 해서, 돈 좀 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 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실망할 때도 많고, 정신없을 때도 많고, 온 몸에서 힘이 쭉 빠질 때도 많습니다. 꼭 골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같은 역할을 해 주신 어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말씀 끝 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35 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현대어 성경에는,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재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역시 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37-38)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거북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서로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다투게 하려고 오셨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0:36)

사실, 마태 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들과 결별을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유대인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려는 유대인들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써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여야 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결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21 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JOY 를 Jesus, Others and Yourself 의 약자라고 하지요? 기쁨의 삶은 먼저 예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리를 잡으면, 다시 말해서, 삶에 질서가 잡히고, 조화를 이루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 날에, 우리들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전에, 귀한 아버지들을 우리의 인생 여정에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드림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 장 말씀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6 월 1 일부터 마태복음 읽으면서,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2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믿음 속원과 제 친구들을 포함하면 50 명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10 장 말씀은 6 월 10 일 수요일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구력에 따라, 오늘 2020 년 6 월 21 일 주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0 장 앞 부분 1 절로 23 절 말씀을 보며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송하시면서, 전도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행동 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23 절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거든 다른 마을로 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둘기 처럼 부드럽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24 절로 39 절 까지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제 맘에 와 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 준 것을 옥상에서 큰소리로 전파하라.”

매일 한 장씩 읽고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Verse of the Day 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VOD 를 나누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7 절 말씀이 VOD 로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 준 것을 옥상에서 큰소리로 전파하라.”

먼저 기억해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되고, 읽혀질 때의 상황은, 믿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끌려가고, 맹수에게 잡혀먹히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생명이 위태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한다고, 로마 황제만이 왕 중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계 신앙인에 대한 탄압이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어려운 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때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26 절, 27 절, 28 절 말씀에 보며는,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 준 것을 옥상에서 큰소리로 전파하라.” 하십니다.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28 절) 하십니다.

한마디로, “담대하라, 용감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담대히, 밝은 데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말하고, 옥상에서 큰 소리로,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 준 것을 전파하라” 고 하셨습니다.

1 세기 교인들 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핍박받고 고통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 중에,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20 억 3 천만, 세계 인구의 30 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World Watch List 통계에 의하면, 2 억 6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50 여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의 거의 10 분의 1 이라고 합니다. 10 명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 준 것을 옥상에서 큰소리로 전파하라.”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나라들끼리 서로 치고 박고, 다들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는 인종 차별이 심하여, 여기 저기에서 평화 행진이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혼란하고 질서가 깨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백인 중심의 영어 회중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종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백인 우월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백인 교인들이 불편해 하고, 어떤 백인 교인들은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밝은 데서 말하고, 옥상에 올라가 큰 소리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국적, 언어, 문화, 피부색깔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김 종성 목사님께서, 창립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 것 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옥상에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29 절로 31 절 말씀을 보며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임을 상기 시켜 주셨습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이름만 아시고 나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만 아니고, 우리들의 이웃들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백인 흑인 황인, 모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6 월 26 일은 제가 미국으로 이민와서 살고 있는 지 42 년 째가 되는 날입니다. 문화 충격, 언어 충격 등으로 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 졸업하고, 막 신혼 살림 차리고, 거주 백인 동네에 있는 보험 회사에 직장을 구하러 갔을 때에도, 저는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거절을 당한 경험입니다. 그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릿찌월드에서 부목사 사역하기 시작할 때 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사관에서 교회 목회실을 향해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잘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백인 동네에, 황인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검문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지요. 경찰은, 동네, 백인들이 사는 동네 지키느라고, 저를 잡았을 겁니다.

미국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 인종 차별 정책 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Systemic racism 이라고 합니다. 이 백인 우월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행하여 지는 인종 차별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때,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백인 흑인 황색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합니다.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Black Lives Matter. 백인들의 생명도 귀합니다. 황색인들의 생명도 귀합니다. 홍색인들의 생명도 귀합니다. 모든 생명이 귀합니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 42 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 친구가 있는가? 흑인 친구가 있는가? 한인 외에 친하게 교통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몇명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부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 친구가 되어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믿음 속 예배에 초대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속 친교 시간에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아닌 친구 초대 하는 주일 예배 시간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인계 미국인으로, 백인들이 다수인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 뿐입니다.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타인종 목회자라고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요즘은 다민족 목회자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ross-Racial & Cross-Cultural Appointment 라고 하지요. CRCC 목회자입니다.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목회자입니다. 도전이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 서로의 다른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쓰임을 받고 있다고 믿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믿음 속이 10 시 회중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주일 아침이, 미국에서 가장 인종 차별이 심한 시간이라고 하지요? 흑인들은 흑인교회, 백인들은 백인교회, 한인들은 한인교회. 라틴계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교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색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언어가 다르지만,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부름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 일서 4 장 19 절로 21 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식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우울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해와 달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가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매일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교회 믿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 피부 색깔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밝은 데 나가서 말하고, 옥상에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